

# 건축의례를 통해 본 전통주거의 공간구조와 의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patial Structure and the Meaning of the Korean Traditional Houses through the Building Rites

정 영 철\*  
Chung, Young-Chul

### Abstract

There were the rites and customs in building of the traditional hou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the meaning of the building rites, and to search the spatial structure and meaning of the traditional houses through the rites as establishing the true dwelling. The traditional houses show the oppositional structure of the sacred and profane through the rites and customs of the building as the communication with the gods and men. The traditional houses are the center of which the gods of four sides defined and have the cardinal points and vertical axis which has the mythical and symbolic meaning.

### I. 서 론

전통주거는 전통사회의 생활이 응해되고 의식이 형태화된 문화적 산물이고, 사람은 단순한 재목이나 토지의 집적으로서의 가옥에 우연히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내적인 연관에서 결부되는 것이다. 인간존재 및 사회의 역사와 종교, 사상과 같은 내적 연관에 사람과 가옥이 통합될 때 가옥은 비로소 진정한 주거가 될 것이다.

우리 조상들은 삶의 안식처요 영혼의 고향이라 할 수 있는 주택의 건설에 있어서 공사의 안전과 신의 가호, 행복의 기원을 위해 여러 의례행위를 배품으로써 진정한 주거를 성립시키려 했다.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생활양식으로서 이 건축의례(建築儀禮)와 관행은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마당에 신에 의지하며 가정과 가족의 행복

과 번성을 기원하며 이상형의 집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고와 심의현상이 노출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건축의례의 뜻을 살피고 이를 통해 선인들이 전통주거를 어떻게 관념했는지, 그리고 전통주거의 공간 구조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 II. 건축의례의 내용

도시나 주거의 건설에 있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러가지 의례가 집행되는데, 이 건설에 관계되는 의례행위는 참된 주거를 성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 조상들은 주택의 건설에 있어서 자연숭배사상이나 민간신앙, 풍수사상 등에 의해 건물의 자리를 결정하고 조영하며 신들에게 자손번창과 부귀다경, 수복강녕을 위한 여러 의례행위를 배풀었다.

조상들은 새로 집을 지으려는 땅에 영력이 있고 지신이 존재하며 신의 노여움에 저촉되면 공

\* 정희원, 경일대학교 건축공학과 부교수  
본 논문은 2000학년도 경일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사중이나 준공 후에 재앙이 일어난다고 믿었으므로 공사의 안전과 공사소음의 허용, 토지를 사용케 해 주시기를 바라는 청원 등을 기원하는 종교적 의례를 실행했다. 이 건축의례와 관행은 삶의 터전을 건설함에 신의 가호를 비는 동시에 행운과 다복을 기원하며 바람직한 집을 이루고자 하는 사고와 마음이 표상된 것이다.

### 1. 성조택일과 대지선정

집을 짓고자 하면 먼저 성조택일(成造擇日)을 하는데, 이는 집주인의 생년월일시와 안주인의 생년월일시에 따라 정해진다. 여기에 따라 집터 닦는 날과 주초놓는 날, 상량과 토신제, 기공의 일시를 정하고 문과 주방, 창고, 하수구, 변소의 방위를 결정한다. 집주인의 운수와 그 집을 지켜 줄 성주의 운이 서로 맞는가를 지관에게 알아보는 것을 '성주운 보기'라 한다.

한편 집터에 대한 관념은 건축의례 때 불리는 성조가(成造歌)에서 엿볼 수 있다. 성조가는 가옥건축의 기초공사와 상량제, 준공식 때 부르는 노래로서, 지신밟기나 터다지기, 땅다지기, 지경담기, 성주풀이, 안택가 등으로 불린다.<sup>1)</sup> 성조가에는 터와 결부된 염원, 조상들이 염원했던 터와 그 사상적 배경 등과 같은 터에 관한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sup>2)</sup>

### 2. 개기제와 개공제

「중보산림경제」 복거조의 건축의례에 의하면 주거의 건설은 개기로 시작한다고 한다. 개기식은 터전이 정해지고 배치법에 따라 자리가 마련되고 집의 규모가 결정되어 모든 계획이 끝나 집터를 고르는 것이다. 개기제는 토신제 또는 텃고사라고도 하며 집터를 새로 마련하고 땅을 파헤치고 다지고 집을 짓게 되었으니 미안하다는 뜻을 고하고 역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아무 사고없도록 도와 달라고 지내는 제사이다.

텃고사를 마치면 '더 높이 들어서 / 광광광 높

시다 / .... / 깊은디는 구만하고 / 높은디를 다잡시다'<sup>3)</sup>라든가, '높은 곳은 낮게 하고 / 낮은 곳은 높게 닦으니 / 벗님네들 힘이라도'<sup>4)</sup>처럼 달고를 사용하여 마을 사람들의 공동작업으로 집터를 다진다.

터를 닦는 과정중 주목되는 것은 '상기둥부터 / 차례차례 닦아서 / 어렵다 생각말고 / 단단하게 닦아가세'<sup>5)</sup>처럼 터를 다지는 일에도 순서가 있다는 것이다. 상기둥이란 안방과 대청마루 사이에 세워지는 기둥으로, 위치상 거의 주택의 중심에 자리하며 상부에 최고가신인 성주신이 봉안된다. 따라서 상기둥이 세워질 자리는 그 위치 및 의미에 있어서 중심으로 상징될 수 있으므로 이 기둥이 세워질 자리를 먼저 다지고자 했던 것이다.

텃고사를 지내면 택지를 정리하고 좌향을 보아 그 방향으로 말뚝을 박아 실을 띄우고 기초의 위치를 정한다.

터를 닦고 나면 개공제를 올리고 시공에 착수하게 된다. 이에 앞서 목수들은 모탕고사를 지내고 석수쟁이들이나 대장쟁이들은 화덕과 풀무에 고사를 지낸다. 붉은색 종이에 '개공대길(開工大吉)'이라 써서 기둥감이나 도리감등에 부치고 백지에 '강태공재차(姜太公在此)'등의 글귀를 써서 처음 다듬은 나무에 부친다.<sup>6)</sup>

### 3. 상량제(上樑祭)

상량제는 기둥 위에 보를 얹고 그 위에 상량인 마룻대를 놓을 때 올리는 제의로 건축의례 가운데 가장 성대하게 지낸다. 상량을 올리는 일은 집을 지어나가는 과정 가운데 가장 뚜렷한 마루터를 이루고<sup>7)</sup> 무에서 유를 형성시키는 건축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틀을 만드는 것이므로, 신에 대한 감사와 함께 창조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의례를 행하는 것이다.<sup>8)</sup>

상마루에는 집을 지은 해, 달, 날, 시, 좌향, 축원문을 쓰는 데 일반적으로 이 상량문 양끝에 용자(龍字)와 귀(龜字)를 서로 마주 대하도록 써둔

다.<sup>9)</sup> 용과 거북이는 사령 중의 수신이므로 수극 화(水克火)의 오행원리에 따라 화재가 나지 않으리라고 여긴 것이다. 상량문에 ‘吳家有一賓 正是海中人 上舍千太水 能滅火精神’<sup>10)</sup>처럼 기록하는데, 이것은 가옥내에 귀빈으로서 해중인(海中人)이 있으며 옥상에 비치한 태수는 화마를 멸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해중인과 천태수의 의미는 화마와 상극관계인 가상적이며 영원적 성격을 띠고 있다.

상량문에는 ‘하늘의 해, 달, 별님은 감응하시어 인간의 오복을 내려주소서(應天上之三光 備人間之五福)’하는 축원이나, ‘용은 날고 봉은 춤추다(龍飛鳳舞);’라는 서구, ‘庚申歲 庚申月 庚申日 庚申時 姜太公造’ 또는 ‘姜太公下馬處’라는 글귀를 써두기도 한다. 이같이 상량문은 인간이 장수하여 잘살고 귀하며 자손이 창성하고 건강한 오복과 집의 유구함과 영원성, 새로 지은 집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기과 같은 염원을 표현한 것이다.

상량신은 상량제를 지냄으로써 성립되고 준공 후에는 가택의 수호신인 성주로 변한다.<sup>11)</sup> 즉 집을 짓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성주신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의례를 통해서 신이 들어오는 것이다. 성주신은 ‘성주단지와 호주는 동년배이다’나 ‘햇곡식의 향아리를 성주단지라 부르며...이 성주 단지는 호주의 대가 바뀔 때마다 반드시 새로 교환된다.’<sup>12)</sup> 라는 말처럼 호주와 특히 긴밀한 관계에 있다.

이처럼 새로 집을 짓는 것은 곧 성주신의 성립을 의미하며, 그것은 동시에 호주가 그 집의 호주로서 성립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성주신앙을 통하여 집이 신성한 곳이라고 느끼게 되고 가정이야말로 행복을 추구하는 보금자리란 의식을 강화하여 가는 것이다.

#### 4. 입택의례(入宅儀禮)

집의 건축이 끝나면 길일이나 손없는 날에 의례를 지내고 입택하게 된다. 이 날은 아무 것

도 집밖으로 내가는 것을 삼가며<sup>13)</sup> 이사한 저녁에 집들이잔치를 베풀고 집 주위를 돌며 잡귀의 침입을 막으며, ‘마루 구석도 네 구석 방구석도 네구석 정지구석도 네구석 좌우 잡신 처다가 저물 아래다 내버리고 명과 복을 처들이세’하고 덕담을 늘어놓는다.<sup>14)</sup>

집이 완공되고 나면 택일하여 집의 수호신을 모시며 가내의 안정과 부귀안녕을 비는 성주굿을 한다. 이로써 건축에 쓰인 재목의 목령을 쫓아내고 가택내 문전신을 비롯한 모든 가내신을 모셔들이고 위로하는 것이다.<sup>15)</sup>

성주굿은 집을 새로 건축하였거나 새로 이사했을 때 집을 지켜주는 최고의 가택신인 성주신을 새로 집안에 봉안하고 기복방액을 기원하는 제의이다. 성주굿 의례의 주내용은 재목을 산에서 끊어와서 집을 건축하는 과정을 모의적으로 실연하는 것으로, 강태공수목시(姜太公首木手)가 성주풀이의 가장 중심적인 행사이다.<sup>16)</sup>

이것은 제주가 신축한 집이 강태공이 세워준 건물과 같이 튼튼하고 또한 다행, 다복하도록 기도하는 유감주술의례이다. 유감주술의례란 ‘유사는 유사를 낳는다’는 동일법칙의 사고에 기초를 두어 의례 속에서 행해진 사항이 실제의 생활에 실현될 것을 기대하여 행하는 의례이다.<sup>17)</sup>

#### 5.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건축의례

건축행위에 의례가 발생한 배경에는 토지나 건축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신의 가호를 얻지 않으면 편안하지 않는다는 신앙심이 존재한다. 건축의례는 신의 노여움을 풀며 신의 뜻을 미리 알아보거나 신에게 감사하며 자손만대 복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축원하는 인간과 신의 커뮤니케이션인 것이다. 상량제를 지냄으로써 상량신이 성립되고 준공 후에 성주신으로 바뀌듯이, 새로 집을 건설하는 것은 곧 성주신의 성립을 의미하며 동시에 그 집의 호주가 호주로서 성립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신과 인간이 커뮤니케이션된 일체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한편 주택 공사라는 것은 공사를 통해 혈연집단의 결속을 확인하며 또 강화하는 기회이기도 했으며, 공사에 마을사람들이 함께 모여 회합하는 장이나 제사의 장도 되었다. 이처럼 민중에게 있어서 건축의례는 이들 민간신앙과 관계되어 신과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고 더 나아가 혈연 및 지연관계의 결속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건축의례에 모셔지는 성주신과 지신은 신축 때만 모셔지는 것은 아니라, 수확 후 또는 춘추 2번에 걸쳐 행해지기도 하는데 그 내용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마당과 마루, 창고 등으로 다니며 재앙을 막아주고 귀신을 쫓아주며 마을사람들이 한바탕 노는 것으로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처럼 마을의 집들을 돌며 토지신이 좌정하는 마당에서 춤추고 지신을 굳게 다짐으로써 마을 사람들의 유대가 강화된다. 즉 마당을 밟는 것은 공동체에서 공동성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의례를 통해 마당이 특이화, 중심화되는 것이다.

건축의례는 신의 가호를 비는 동시에 가족과 마을민들의 행운과 평안을 기원하는 종교적 의식이기도 하다. 건축의례에 있어서 처음에는 신과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구해지고 다음에는 마을 구성원 상호의 커뮤니케이션이 찾아지며 참가자의 동지적 단결의 강조가 추구되었다고 할 수 있다.

### Ⅲ. 전통주거의 공간구조와 의미

#### 1. 전통주거의 터

전통사회의 집터에 대한 관념을 건축의례 때 불리는 성조가(成造歌)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터와 결부된 염원이 나타난 노래는 다음과 같다.

‘요집 지어 삼년만의 / 고소(告祀) 한번 잘 디렷더니 / 아덜은 나면 소자(孝子)요 / 딸은 나면 열녀라 / 메누리 허면 충신하고 / 딸 새긴 나면

명마나코 / 쉼 새긴 나면 황우나코 / 돛 새끼 나면 산뚝나코 / 개 새긴 나면 시농개라<sup>18)</sup>

‘이 터 닦고 집을 지면 / 수명 장수 하겠네 / 올라갔다 내려온다 / 단단히 고르어라 / 더덩실 고래등 같은 집을 짓고 / 천년 만년 살고 보세 / 아들 딸 낳고 오손도손 / 잘 살아보세<sup>19)</sup>

위의 노래들은 수명장수하고 고래등같은 집을 지으며, 자식이 효자와 효녀가 되고 가족이 황우, 명마, 봉황처럼 잘 자라기를 바라는 등 생활에 대한 염원이 ‘이 터 위에 집을 짓고’라고 하듯이 어떤 특정한 터에 집을 짓는 것이 전제되어 얻어진다는 내용으로, 터에 대한 관념을 잘 나타내고 있다.

둘째 성조가에는 선인들이 장수와 부귀, 자식복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염원했던 명당터에 대한 표현도 있다:

‘천하명기 생길적에 / 태백산 나린용이 / 소백산에 기봉하여 / 소백산에 나린용이 / 주마산 떨어져서 / 명승지가 되었구나 / 이 명당에 터를 닦고 / 초가삼간 지을적에<sup>20)</sup>

‘요 산천 돌아 보니까 / 천리내용에 일석지이라 / 청룡백호 벌려 있으니 / 자손창성 할 땅이여 // 부귀영화지지로구나 / 청용 끝에 문필봉이요 / 백호 사이는 활고자 형이니 / 장자장손 대과지지 / 차차차손 중시급제 / 외자외손 무과급제..<sup>21)</sup>

우리나라 명당 마을 형국의 분류상 가장 많은 것은 동물형(금계포란형-임경당, 쌍용농주형-임청각, 지네형, 와우형 등), 사물형(금환낙지형-구례운조루, 반월형, 행주형 등), 식물형(연화부수형-하회마을), 인물형(옥녀산발형), 문자형(야자형, 내자형, 물자형) 등의 순이다.<sup>22)</sup>

셋째 명당이란 집터의 염원에는 풍수지리설의 배경이 있다.

‘팔도강산을 돌아보니 / 곤륜산이 생기었고 / 곤륜산 줄기가 떨어져 / 백두산이 생기었고 / 백두산 줄기가 뚝 떨어져 / 금강산이 생기고 /.../ 요 집터이 생겼고나 / 남향판을 폐와 놓고 / 한

로산 중심잡아 / 성산오름 안뒤 잡아 / 대해를 명당잡고 / 좌우쪽을 돌아보니 청룡백호 둘러이서 부귀영화가 다 들었구나 /<sup>23)</sup>

‘이 터에다 집을 짓고 / 백호청룡 둘러놓고 / 건너봉은 학자봉이요 / 학두쌍이 노닐적에 / 한 날개 툭툭치면 / 이리만석 저리만석이요’<sup>24)</sup>

‘이 산령이 어디서 왔나... / 경기도 삼각산은 / 한강유수가 음양수라 / 삼각산 나린 줄기 / 주춤 주춤 내려와서 / 도봉산이 주봉일세 / 좌청룡 우백호에 / 자좌오향이 여기로다 / 쇠를 놓고 지가 서를 보니 / 제일명당이 여기로다’<sup>25)</sup>

위의 노래에서 터 주위에 청룡과 백호를 둘러놓는다는 것은 명당을 만드는 국을 이룬 곳에 터를 잡고자 하는 것이며 자좌오향은 풍수의 좌향론(坐向論)에 관한 것이다.

## 2. 전통주거의 평면 형태

건축의례 때 부르는 성조가를 통해 보면 주거의 평면 형태는 크게 방형(方形)과 문자형으로 나눌 수 있다.

‘사방에 주초놀 때... / 넷모에 기둥놓고..’

‘오행으로 주추놓고.. / 인의예지 기둥세워..’

‘정지구석도 네 구석.. 마구구석도 네 구석..’<sup>26)</sup>

위의 노래들은 전통주거의 평면이 한 건물 전체뿐만 아니라 정지와 마구, 방, 대청 등 각 단위공간도 네모진 형태라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로써 전통 사회의 평면 형태는 방형이 기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기억자로다 집을 짓고..’ / ‘목숨수자로 집을 짓고..’ / ‘아래채는 복복자요, 중문간은 편안강자, 행랑은 편안녕자...’<sup>27)</sup> 처럼 문자를 이용한 평면 형태도 볼 수 있다. 물론 이 문자들은 현실성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주거가 길하고 복이 많이 있기를 바라는 염원에서부터 좋은 뜻의 문자를 빌어 주거의 평면 형태를 노래 한 선인들의 관념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문자형 평면 형태는 풍수지리설과 관련된 것으로, 일(日)·월(月)·구(口)·길(吉)자

평면은 좋으나 공(工)·시(尸)자 평면은 나쁘다고 한다. 이러 문자형의 사례로는 일자(월성 향단), 용자(안동 임청각), 품자(구례 운조루), 기자(己字-안동 의성김씨 종가)등을 들 수 있다. 이 문자 유형은 일종의 주거 만다라로도 볼 수 있으며, 주거의 기능을 무시하면서까지 상징성과 염원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3. 전통주거의 성숙구조(聖俗構造)

선인들은 무질서하고 부정한 외부의 숙된 세계에 대해 주거를 안락하고 정화된 성스런 공간으로 만들려 하였다. 따라서 풍수사상이나 민간 신앙 등에 의해 집터를 정하고 좌향법에 따라 건물을 앉히며 주거 요소마다 신을 봉안함으로써 주거를 의미있고 성스런 공간으로 구성하려고 힘써 왔다.

주거건축에 대해서는 고대로부터 근세에까지 삶에 필요한 도구일뿐만 아니라 신과 인간이 공존하며 우주의 질서를 나타내는 신성한 공간이라고 인식해 왔다. ‘...多所忌韓疾病死輒損 舊宅更造新居....’<sup>28)</sup>처럼 집을 신성시해 왔으며 ‘..其俗作婚姻言語已定嫁作小屋於大屋後 名壻屋..’라는 기록에서는 집의 신선도와 신성시가 생활화한 것을 볼 수 있다.<sup>29)</sup>

건축의례는 건축행위를 신의 뜻이라 생각하여 신의 뜻을 미리 알아보기 위해서나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하여 무속적이고 주술적인 행위를 하게 된 것이다. Genep은 건축의례가 무질서하고 부정형적인 외부 자연환경에서부터 질서잡히고 유기적이며 신이 공존하는 성스런 공간으로 이행하기 위한 하나의 통과의례에 속한다고 한다.<sup>30)</sup>

주거 공사의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건축의례는 주거를 성스런 공간으로 여기는 관념을 보여준다. 땅을 고르고 집 모습으로 말뚝을 박고 새기 줄을 맨 후 개기제가 올려지는 것은 부지를 깨끗하게 하며 부정하고 잡스러운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상징적 의식으로, 건축 부지가 신성청

정한 구역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상량제 때는 상량신에게 제를 올리고 준공 후에는 성주굿을 하여 주택의 수호신으로 성주신을 모시게 되는데, 성주신은 마루에 봉안된다. 마루는 주거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주거생활의 주요공간이 되며 주된 의례가 여기서 행해지는 중심공간이라 할 수 있다. 성주신은 그 봉안 장소와 위치, 시기, 명칭, 그리고 무가(巫歌)에서 보이듯이 하늘과 관련되는 최고의 신이 되는 것에서부터 그 봉안처인 마루가 가장 청정하고 성스런 공간임을 알 수 있다.

마루의 성성(聖性)은 조상의 지방과 성주신이 모셔지는 것에서 명백하다. 이러한 마루의 성성을 보다 순수하게 보전한 예가 북방의 근린 여러 민족의 가옥 내에도 있는 것이 알려져 있다.<sup>31)</sup>

가옥의 신축 때 행해지는 의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가택의 중심이 되는 성주신과 호주는 각각 그 집의 성주신과 호주로서 자기동일성을 가지며 성주신과 호주는 불가분한 내적연관을 갖는다. 어원상으로 볼 때 마루는 북통구스족의 천막내의 최상석인 Maru, Maro와 동계로, 마루 즉 종은 조상이나 신령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다가 다시 산마루처럼 신령과 맞닿는 정상의 뜻으로 분화되었고 또한 신라의 왕호인 마립간도 같은 어원이다. 곧 마루는 으뜸되고 성스러운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집이 완성되어 들어갈 때는 집들이 고사를 지내 가신들께 제를 올리며 집안 구석구석을 정화수로 물을 뿌리며 잡귀의 침입을 막아달라고 기원한다. 이상과 같이 하나의 주거가 형성되는 것은 함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몇번의 의례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 그 의례를 통해 건축하는 장소를 성별함으로써, 즉 그 터가 중심이 되게 함으로써 그 주거의 실재성이 확보되며 신에게 바치는 제의를 반복함으로써 그 건축행위의 타당성이 확보되는<sup>32)</sup> 것이다.

이처럼 주거는 안과 밖이 구별되고 분절된 하

나의 성스런 공간으로 이는 터를 고르고 집을 조영하는 각 단계마다 행해지는 건축의례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외부의 속된 세계에 대해 신들이 공존하는 주거의 신성공간은 다시 주거내 각 요소마다 봉안되는 신들의 위계와 생활의 중요도에 따라 위계성을 갖게 되어 성주신이 봉안되는 마루는 가장 성스런 공간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 4. 전통주거의 방위와 중심성

전통사회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주거를 세계의 중심이며 소우주로 여겼다. 전통주거는 땅과 하늘을 맺는 세계축, 즉 세계의 기둥 또는 세계의 나무와 동일시되는 중심성을 보이는 것이다. 주거의 건축행위 때 이루어지는 건축의례와 성조가에 나타난 방위에 관련된 내용을 통해 전통사회의 방위관과 전통주거의 방위와 중심에 관한 상징적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방위관념은 구석기시대에 이미 등장하여 동서남북, 상하, 중앙의 관념들과 더불어 종교적 세계관 속에 편입되었는데, 엘리아데에 의하면 이러한 공간에 대한 종교적 직관은 영장류들이 직립하고부터라고 말하고 있다.<sup>33)</sup> 즉 직립한 인간을 중심으로 하여 동서남북, 상하의 관념이 생겼다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은 동서남북의 기본방위와 수직축으로 구성된 우주체계의 중심에 위치함으로써 우주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서, 방위체계는 우주공간에 질서를 부여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질서있는 환경에 인간이 거주함으로써 심적 평안과 생활상의 안전을 얻고자 함이었다.

전통주거에 있어서 세계는 균질적인 것이 아니라 각 방위마다 구별되고 각각의 의미를 갖는다. 방위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노래되고 있다.

'동방에는 청학이 있고 / 남방에는 적학이 있네 / 서방에는 백학이요 / 북방에는 흑학이 있으며 / 중앙에는 황학이로다'<sup>34)</sup>

'동방에는 청제지신 / 남방에는 적제지신 / 서

방에는 백제지신 / 북방에는 흑제지신 / 중앙에는 황제지신<sup>35)</sup>

위의 노래에서처럼 전통사회의 방위는 동방, 남방, 서방, 북방, 그리고 중앙의 오방으로 나타나며 오방지신 및 오행사상과 관련된다. 이러한 오방과 오방지신, 오행사상의 연관성을 건축의례와 가신신앙과 같이 검토하면 전통주거의 중심성을 도출할 수 있다.

개기제는 집 지을 터를 관장하는 지신에게 지내는데 지신은 가신신앙의 터주에 해당되고 터주는 오방지신 중 중앙에 거하여 다른 사방신을 다스리고 토를 관장하는 황제이므로<sup>36)</sup> 터주가 거하는 곳 역시 오방의 중앙이며 터주가 관장하는 터에 세워지는 주거 역시 중앙이 되는 것이다. 이같이 전통주거가 오방의 중앙에 위치한다는 것은 주위의 사방신이 한정하는 영역 가운데 설정되는 중심의 상징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영역과 중심의 개념은 건물 터뿐만 아니라 건축 행위에서도 나타난다. 즉 '네 귀에 주추박고 / 떡물새겨 네 지동 가운데는 / 상지등을 세워놓고 / 대들보를 엮을 때에'<sup>37)</sup>처럼 전통주거는 네 귀에 주추를 놓고 네 기둥을 세워 영역을 한정하고, 그 가운데 상지등을 세워 대들보를 엮음으로써 한정된 영역 속에 하나의 중심을 설정하는 것이다. 전통주거는 하나의 세계의 중심이고 마루는 성주신이 좌정하며 천지교통하는 성의 중심인 것이다. 이처럼 영역과 중심은 주거내에서 반복되며 마루는 중심으로 상징되는 주거 속에 설정된 또 하나의 중심으로서 최상위가 되는 것이다.

한편 풍수지리설에는 주거방향을 한정하는 절대적 방향의 좌향이 있다. 이는 주거가 앉히는 혈의 중심, 즉 양기이면 안채를 세우는 곳, 음택이면 관을 묻는 곳을 좌(坐)라 하며 이 좌가 정면하는 방위를 향이라 하며 주거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다.<sup>38)</sup> 이처럼 좌는 혈이라는 주거의 중심이 되는 곳에 설정되며 주위의 제공간은 이 좌향을 기준으로 하여 방향지워진다. 혈 주위의 산

세는 동서남북이라는 방위에 우선하여 좌청룡우백호등 전후좌우라는 방향에 따라 위치지워지는 것에서부터, 이 좌향설정에 있어서는 혈(또는 좌)에 놓여진 신체 즉 호주가 전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신체 곧 호주는 혈 위에 세워지는 안채와 방향지움=향을 공유하는 것이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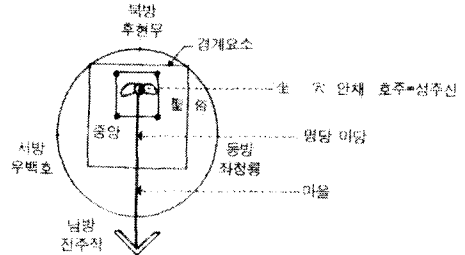


그림 1. 전통주거의 영역과 중심성, 좌향설정

이같이 안채가 일정한 방향을 갖는 것은 좌와 거기에 앉을 호주가 동시에 방향지워지는 것에 의한다고 생각되며, 이 방향결정을 기준으로 주위세계는 위치잡히고 의미부여되는 것이다. 혈의 중심에는 좌가 자리잡고 이 좌가 방향을 갖는 것에 의해 그 전후좌우의 지형이 각각의 배치에 따라서 의미지워지는 것이다. 따라서 좌는 신체를 전제로 하여 비로소 좌가 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혈은 이러한 좌가 놓이는 장소로서 신체와 결부되었던 것이지만, 한편 대지를 흘러 혈에 모이는 기가 신체의 생성을 기초지으며, 대지를 포함한 자연만물의 성립근거란 것에 의해 신체와 대지는 혈에서 내적으로 결부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방향결정, 좌향은 단지 주위세계를 위치잡히는 것만이 아니라, 이 집 및 가계의 사람들의 운명도 결정한다고 믿어졌다. 각각 의미부여된 방위에 따라 기가 흘러들고 그것에 따라 그 기가 모이는 혈에 자리잡은 집과 사람의 운명이나 역사가 결정된다고 믿어지는 것이다.

## IV. 결 론

이상 건축공사에 이루어지는 건축의례의 뜻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서 전통주거의 공간구조 및 의미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의례는 무질서한 외부세계에서 질서잡히고 신이 공존하는 성스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이로써 가옥은 진정한 주거로 성립되며 평안과 안정을 주게 되는 것이다.

둘째 건축의례는 건축행위에서 신의 가호를 비는 동시에 가족과 마을민의 행운과 평안을 기원하는 의식이다. 또 신과 인간이 일체화되며 마을 사람들이 공통성을 확인하며 결속을 강화하는, 신과 인간 사이의, 그리고 마을민 상호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전통주거는 안과 밖이 구별되고 분절된 하나의 성스런 공간으로, 이는 터를 고르고 집을 조영하는 각 단계에서 행해지는 건축의례에서도 살펴 볼 수 있다. 하나의 주거가 형성되는 것은 몇 차례의 의례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 그 의례를 통해 건축하는 장소를 성별함으로써, 즉 그 터가 중심이 되게 함으로써 주거의 실재성이 확보되며 건축행위의 타당성이 확보된다.

넷째 전통사회의 방위관념은 동서남북중앙의 오방으로 오방지신 및 오행사상과 연관된다. 중앙의 황제에 해당되는 터주가 관장하는 터에 세워진 주거는 사방신이 한정하는 영역 가운데 설정되는 하나의 중심이며, 혈에 해당되는 마루는 성주신이 좌정하며 천지교통하는 주거의 중심, 성의 중심으로 최고의 위계를 갖는다. 이러한 영역과 중심의 개념은 주거 속에서 반복되어 위계성을 갖는다.

선인들은 전통주거를 신화적, 상징적 의미를 갖는 동서남북의 기본방위와 수직축으로 구성된 우주체계의 중심에 위치시킴으로서 우주 및 환경과의 사이에 역동적인 균형, 질서를 찾으려 심적 평안과 생활상의 안전을 얻고자 한 것이다.

## 주

- 1) 김성배, 한국성조가의 연구, 동국대학교 논문집 제13집, 1974, p.49
- 2) 권종남, 성조가에 나타난 전통주택건축의 내용에 관한 고찰, 성균관대학 석사학위논문, 1989, pp.9-22
- 3) 김성배(1975), 전계서, p.211
- 4) 상계서, p.165
- 5) 신영훈, 한국고건축단장, 동산문화사, 1977, p.268
- 6) 김광언, 한국의 주거민속지, 민음사, 1988, p.42
- 7) 박언곤, 한국건축사강론, 1990, 문운당, p.79
- 8) 김광언, p.43
- 9) 오홍석, 제주도취락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경희대박사학위논문, 1974, p.42
- 10) 장보웅, 한국의 민가연구, 보진재출판사, 1986, p.41
- 11) 三品彰英, 古代祭政と 穀靈信仰, 평범사, 1973
- 12) 장보웅(1986), 전계서, p.43
- 13) 김광언, 전계서, p.48
- 14) 제주도민속자료, 제주도, 1987, pp.183-184
- 15) 현용준, 제주도무속연구, 집문당, 1986, pp.285-287
- 16) 상계서, p.349
- 17) 제주의 마을 7, 봉개리, 도서출판 반석, 1990, pp.92-93
- 18) 김성배, 향두가. 성조가, 정음사, 1975, p.128
- 19) 상계서, p.228
- 20) 진성기, 남국의 민요, 제주민속연구소, 1991, p.162
- 21) 김광언, 전계서, pp.25-28
- 22) 제주의 마을 2-오조리, 도서출판 반석, 1990, p.63-65
- 23) 김성배(1975), 전계서, p.200
- 24) 상계서, pp.167-168
- 25) 김성배(1975), 전계서, pp.228, 233, 242
- 26) 상계서, pp.151,152,169



## 참 고 문 헌

- 27) 後漢書 東夷傳 滅條
- 28) 박언곤, 전계서, p.34
- 29) Genep, 통과례, 서영대역, 인하대출판부, p.29
- 30) 이병도,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1976, pp.627-628
- 31) Eliade, The Myth of Eternal Return, Princeton Univ. Press, 1971, p.20
- 32) M. Eliade, A History of Religious Ideas, Chicago Press, vol. 1, p.3
- 33) 김성배(1974), 전계서, p.54
- 34) 김성배(1974), 전계서, p.54
- 35) 상계서, P. 174
- 36) 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 v.28, 동아출판사, 1985, p.98
- 37) 김성배(1975), 전계서, p.130
- 38) 村山智順, 조선의 풍수, 최길성역, 민음사, 1990, p.36
1. 김태곤, 한국무속연구, 집문당, 1985
2. 배도식, 한국의 이사풍속, 한국민속학 18, 민속학회, 1985
3. 유재현, 혈과 명당의 관계를 통하여 본 한국 전통건축공간의 중심개념에 관한 연구, 울산 공대연구논문집 제10권2호, 1979
4. 장성준, 풍수지리의 국면이 갖는 건축적 상상력에 관한 연구, 건축, 제22권 85호, 1978
5. 장주근, 한국의 향토신앙, 을유문화사, 1979,
6. 최길성, 한국민간신앙의 연구, 계명대출판부, 1989